

지금으로부터 大統領 閣下를 모시고 当院에서 研究한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에 關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当院에서는 今年度 大統領 閣下の 初度巡視以後, (長官任 指示에 依拠하여) 「統一理論의 科學的 定立」을 爲한 基礎作業으로서 南北韓의 政治・經濟・社會・文化・軍事等 各分野別 精密比較의 檢討가 現在 作業中에 있는데, 이와 같은 作業의 一環으로서 經濟分野에 있어서 南北韓經濟現況比較를 完了한 바 있습니다.

本 作業에 있어서는 特히 北韓統計의 信憑度라든가 時系列上의 問題點이 있기는 하나 可及的 北韓이 발표한 數值를 그대로 引用 하므로써 客觀的 檢討에 依한 事實 그대로의 結論을 얻기에 努力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릴 順序는

첫째, 北韓의 經濟體制 및 政策의 基本路線과

둘째, 南北韓主要部門別 經濟現況比較에 있어 總量面의 GNP, 歲出入豫算規模, 1次産業部門인 農業分野, 2次産業部門인 鉸工業을 爲始 하여 社會間接資本部門, 國際收支 및 輸出入貿易規模, 國民經濟生活의 順이 되겠으며

세째로, 南北韓經濟의 構造的 強弱點比較 및 70年代 中半期까지의 經濟成長豫測 比較를 說明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北韓의 經濟體制 및 政策의 基本路線에 關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自由主義經濟體制란 私有財産의 基礎위에서 「價格機能」에 依한 自律的 資源의 配分이 이루어지는 制度的 形態를 말하고 있으며 따라서 個人의 合理的 利潤追求는 勿論 經濟의 生産單位는 私的인 利潤追求를 目標로 삼고 있기 때문에 國民經濟에 있어 投資와 生産의 主體는 民間企業이 為主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社會主義經濟體制下에서는 生産手段의 私有를 否定하므로서 中央集權的 計劃에 依한 劃一的인 資源의 配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北韓의 經濟도 固有의 「맑스」理論을 基本바탕으로 하여 오늘날 蘇聯을 비롯한 모든 共產國家와 마찬가지로 「計劃經濟」를 實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北韓의 經濟體制的 基本的 特徵을 몇가지 要約하여 말씀 드리면

첫째, 生産手段의 國・共有化를 들 수 있습니다.

北傀는 지난 50年代 後半에 와서 모든 個人的 私有財産과 中·小商工業을 「利用」, 「制限」, 「改造」의 3段階 欺瞞戰術로서 完全히 消滅시켰으며 压力과 強制手段으로서 凶營 또는 協同農場에 吸收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이같은 生産手段의 固有化와 農業의 集團化로 北韓은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實施하고 있는데 모든 生産指標는 中央의 劃一의 管理下 統制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中央集權的 經濟管理体制는, 計劃機構인 上部 構造와 地方의 生産單位인 下部 構造間의 創意와 能率의 欠如를 招來하여 生産性的 低下를 惹起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蘇聯이나 東歐諸國에 있어서는, 이같은 非能率을 是正하기 爲하여 이미 1950年代부터 生産單位에 「利潤制度」의 導入과, 「決定機能」의 分散等 構造的 矛盾을 是正하기 爲한 끊임없는 制度의 改革을 斷行하고 있으나, 北韓은 아직도 지난 1930年代에 蘇聯이 取했던 原始的 形態의 管理体制를 그대로 固守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다음 經濟政策의 基本路線으로서,

첫째, 重工業 優先策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北韓은 내핍生活에 依한 最大限의 蓄積과 軍需産業 爲主의 重工業優先策을 推進하므로서 輕工業部門을 犧牲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961년부터 70年度까지의 10年間 投資의 配分現況을 볼때 重工業과 輕工業의 比率이 8:2 라는 不均衡을 머우고 있습니다.

둘째는 Autarky 經濟體制를 固守하고 있는데 1966年 勞動黨 代表者 會議에서 「社會主義經濟建設에서 가장 重要한 問題는 自力更生의 原則에서 自主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것이 黨의 일관된 路線」이라고 宣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 이같은 外部로 부터의 孤立된 閉鎖體制의 追求는 各國은 綜合的인 産業基盤을 確保해야 한다는 「스탈린」式의 「一國家社會主義體制」를 그대로 模倣한 것이며, 또한 60年代 中半期를 前後하여 共產圈諸國으로부터 援助가 中斷된데 起因하는 것 입니다.

끝으로 國防·經濟의 併進策을 들 수 있습니다.

「經濟力 發展과 軍事力 強化를 併行한다」는 政策은 66年 10月

党代表者會議에서 宣言되었고, 労働党 全員會議에서 採択된 以來,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結果 68年度에는 最高로 歳出豫算의 32.4%인 7億4千万
弗의 軍事費를 支出하므로서, 北韓의 人口 1人當 軍事費負擔額이
約 53弗에 達하고 있는 実情입니다.

다음 南北韓主要部門別, 經濟現況比較를 說明 드리겠습니다.

먼저 總量面인 GNP를 볼때

지난 1972年度 現在, 韓國의 GNP는 約 98億弗이었으며, 따라
서 1人當 國民所得은 303弗에 達하였습니다. 그러나 北韓은
同年의 GNP 38億弗, 1人當 國民所得이 約 260弗 水準에 達
하고 있습니다.

한편 GNP에 對한 軍事費 負擔率은 韓國이 4.5%에 不過한데
反하여, 北韓은 14%로서 엄청나게 높은 現象을 볼 수 있으며,
지난 1964년부터 72년까지의 南北韓의 平均經濟成長率은 韓國이
9.7%, 北韓은 6.9%로서 韓國은 北韓에 比하여 相對적으로 높
은 高度成長을 持續하여 왔습니다.

GNP에 對한 總投資의 比率을 볼때 韓國은 21%, 北韓이 31%

인데 그중 우리나라는 國內貯蓄이 15% , 海外貯蓄이 6.3%를 차지하고 있으나 北韓은 31%의 總投資를 거의 國內蓄積으로 充當하고 있는 것이 特異한 現象입니다.

以上을 分析評價하여 볼때 , 우선 總量面에서 北韓의 GNP는 韓國에 比하여 約 40%에 不過합니다.

또한 北韓은 國內蓄積 31%에 比하여 經濟成長率은 6.9%로서 4 내지 5의 높은 資本係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現象은 軍需工業을 爲主로 한 重工業 一辺倒의 投資의 集中이 産業間의 不均衡을 深化시킴으로서 , 産業間 投資의 誘發과 前·後方 聯関効果의 欠如는 엄청난 資本의 浪費 및 非效率性을 增大시키고 있다고 判斷되고 있습니다.

反面에 韓國은 67年부터 69年間的 年平均 成長率 12.6% , 73年度에는 成長率이 16.9%로서 高度成長을 持續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0年代 中半期부터 1973年度까지 7個年間に 걸쳐 南北間 GNP의 成長趨勢를 動態的인 側面에서 볼것 같으면 , 우리는 지난 62년부터 兩次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 推進으로 , 지난 65年度를 고비로 하여 總量面의 急激한 成長趨勢를 보여주고 있으며 , 73年度에는 GNP의 規模가 123億弗에 到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같은 總量面의 膨脹은 , 따라서 人口 1人當 國民所得에 있어서도 顯著한 增加를 가져와 지난 1970年度를 分岐點으로 하여 北韓을 凌駕하기 始作하였는데, 72年度의 303弗, 73年度의 373弗로 增加하였으며, 反面에 北韓은 72年度의 260弗, 73年度에는 280弗 相當으로 推定되고 있습니다.

다음 南北韓 歲出入 予算規模에 關해서 말씀드리다면, 73年度 韓國의 歲出予算規模는 約 16億 5千萬弗로서 그中 國防費가 4億 6千萬弗을 차지하고 있으며, 一般經費 7億 5千萬弗, 投融資 4億 4千萬弗 等으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反面에 北韓은 總予算規模 33億弗 가운데 國防費 5億弗, 人民經濟費 19億弗, 社會文化施策費 8億 2千萬弗, 機關管理費 6千萬弗 等으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한편 歲入構造를 보면, 韓國은 總予算에서 租稅收入이 75%, 政府企業收入 8.6%, 其他收入이 16%이나, 北韓은 社會主義 經理收入金이 98%나 되며, 住民 諸稅는 2%에 不過한 現象입니다.

原來 社會主義 經理收入金은 企業去來收入金, 企業利益金, 其他 協同團體의 所得稅等으로 区分되고 있는데, 企業利益金이란 獨立

採算制에 依해 運營되는 各種 企業所에서 利潤에 該當하는 部分
中에서 管理維持費라든가 計劃된 自体基金을 控除한 残余基金을
稅源으로 하는 것인데 이같은 經理收入金이 總予算에 98%를
차지하고 있고 名目上의 勤勞所得稅의 性格을 띠우고 있는 住民
諸稅가 2%에 不過한 事實은, 結局 北僞는 住民들에게 直接的인
租稅의 負擔感을 주지 않으면서 過重한 負擔을 国营企業利益金이
란 形態의 間接稅에 置重하므로서 陰性的인 착취가 크다는 事實
을 反映하여 주는 것입니다.

以上과 같은 現況을 分析 評價하여 보면, 南北間의 經濟體制가
相異함에 따라 北韓의 予算規模는 韓國에 比하여 2.3배에 達하
고 있는데, 共產主義 經濟體制下에서는 資源의 生産, 分配, 消費의
循環過程이 國家計劃委員會에서 劃一的으로 統制되기 때문에 財政의
機能은 經濟活動의 모든 部門을 反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企業의 一部 獨立採算制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北韓의
GNP對 予算의 比重은 約 75%에 達하고 있으며

反面에 韓國은 約 18.4%에 不過하나, 租稅收入이 稅入의 大
宗을 이루고 있는것이, 特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北韓은, 지난 72年부터 名目上의 國防費를 줄이고 余他 歲出項目에 隱蔽하기 始作하였는데

지난 60年代 中半期부터 北韓의 國防費 增加率을 볼것 같으면, 予算에서 國防費의 比重이 '66年度에 19%이던것이 '67年度以後부터는 30%를 凌駕하여 68年度에는 32.4%로써 絶정에 達하였읍니다.

이러한 現象은 60年代 中半期부터 東西冷戰体制의 崩壞와 더불어 強大國間의 政治秩序가 勢力의 多元化 現象을 招來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共產圈內의 理念紛爭, 그中에서도 特히 中·蘇 紛爭의 激化는 北傀로 하여금 独自の 防衛体制를 強化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北傀는 四大軍事路線의 追求와 함께 國防費의 急激한 膨脹을 招來하게 되었으나 72年부터는 赤十字會談等 南北間의 接觸이 活潑해지자 다시 名目上의 軍事費를 줄이고 余他 歲出項目에 隱蔽하는 「偽裝平和攻勢」를 展開하여 왔던 것입니다.

北韓의 農業經營体制은, 1946年 土地改革에 依한 「個人農時代」를 거쳐서 1954年부터 58年間에 實施된 農業集團化 過程을 經由하여 現在 約 3,700個의 大小協同農場을 主軸으로 하는

社会主義的 農業經營體制을 形成하고 있습니다.

우선 農業生産基盤을 南北韓 比較하여보면, 71年度 現在 韓國의 總耕地面積은 229万 町步에 達하며 그中 논이 127万町步, 밭이 101万町步에 達하고 있습니다.

反面에 北韓은 總耕地面積 208万町步 가운데 논이 70万町步, 밭이 138万町步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農戶當 耕地面積은 韓國이 1町步 미만인데 比하여 北韓은 1.6町步이며, 農業의 機械化 現況은 韓國은 耕耘機 約 2万5千台가 農村에 보급되어 있으며 北韓은 15馬力 換算基準으로 「트랙타」 約 4万台를 推定하고 있습니다.

化學肥料의 施肥量은 成分含量으로 韓國은 町步當 267kg에 達하고 있으나, 北韓은 아직도 町步當 施肥量이 200kg에 不過한 實情입니다.

이같은 現況을 分析 評價하여 보면, 우선 논의 面積은 韓國이 北韓에 比하여 1.8倍에 達하고 밭의 面積은 北韓에 比하여 73%에 不過한 現象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人口1人當 耕地面積은 韓國이 213坪인데 比하여 北韓은 435坪에 達하고 있음

니다.

肥料의 施肥量은 韓國이 優位에 있으나 機械化에 있어서는 北韓에 比하여 劣勢에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根本적으로 韓國은 農業의 經營形態가 北韓과 相異함으로 輕裝備 農業機械化라고 할 수 있는데 自由主義 經濟體制下에서의 零細性을 띤 家族單位의 營農形態는 單位面에서 重裝備의 機械化를 導入하는데 制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72年度 現在, 韓國의 穀物 總生産量은 精穀 644萬噸, 薯類 67萬噸이며 이중 白米는 約 400萬噸에 達하고 있습니다.

反面 北韓은 '70年度의 粗穀의 總 生産量 500萬噸, 薯類 125萬噸을 發表하였읍니다만 우리의 精穀基準으로 換算할때 穀物이 約 450萬噸에 達할것으로 推定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 61년부터 70年度까지 60年代 10年間의 南北韓의 食糧作物의 生産增加率은 韓國이 同 期間에 32%인데 反하여, 北韓은 12%의 미미한 增加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農業分野의 침체는 오늘날 蘇聯을 비롯한 共產圈內의 共通적인 現象이라 할수 있는데, '72年度에 蘇聯은 農業의 沈滯로 因하여 美國, 「카나다」等 西方 諸國으로부터 18億弗에

相当하는 小麦을 購入함으로써 世界的인 穀物波動을 야기시키고
말았습니다.

以上을 分析 評價하여 볼때, 南北韓 町步当 米穀生産량은 170
年 現在 韓國은 3.2 屯으로서 北韓의 2.9 屯보다 生産性이 相对
적으로 높으나 人口1人当 食糧生産량은 韓國의 237 kg보다 北韓
은 414 kg으로서 北韓이 自給度가 높은 位置에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은, 現在 食糧의 雜穀 混食率이 5:5로서 住民消費
生活은 우리에 比하여 낮은 水準에 있는 것으로 判斷되고 있음
니다.

다음 鉍工業部門에 對해서 說明드리겠습니다.

南北韓의 地理的인 特徵으로 因한 賦存資源의 차이는 8.15
解放當時 重工業의 80%는 北韓에 偏在케한 重要 原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重工業의 基盤이 되고 있는 鉄鉍石의 87%, 無煙炭
89%, 有煙炭 約 98%가 北韓에 편중되어 있으며 또한 豊富한
水資源은 電力生産도 過去 北韓에 集中되어 解放當時의 現況을
보면 電力의 96%가 北韓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地下資源과 動力資源을 바탕으로 北韓은 鋁業部門과 金屬工業 發展의 与件이 有利하였는데 特히 金屬工業의 發達은 原料供給源으로서의 金屬鋁量과 主要需要部門으로서의 機械工業과 建設業, 그리고 軍需工業에 支配된다고 할 수 있으며 70年度 以前까지만 하더라도 韓國이 劣勢에 놓여 있던 分野입니다.

그중에서도 特히 主要한 鐵鋼工業은 72年度 北韓의 鋼鉄生産量이 約 243萬屯에 達하고 있으며 鋼材의 生産에 있어서도 總量面에서는 대체로 鋼鉄生産高의 約 70% 水準에 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反面에 韓國은 73年度 鋼鉄生産量이 總 246萬屯으로서 南北韓이 對等한 位置에 있으나 現在 浦港綜合製鉄의 擴張과 第2綜合製鉄의 建設推進으로 70年代 中半期 부터는 懸격한 格差를 보일 것으로 豫想되고 있습니다.

化學工業部門은 國土의 分斷과 더불어 北韓이 絶對優位에서 出 發한 分野이었으나 72年度 現在 肥料의 生産量은 韓國이 141萬屯이며 北韓은 同年에 約 150萬屯의 設備能力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生産量은 精確히 推定할 수가 없으며 다만 成分屯에 있어

서는 北韓의 40萬 成分屯에 比하여 韓國은 64萬 成分屯을 나
타내고 있습니다.

主要 合成樹脂는 韓國이 8萬5千屯, 北韓이 4萬屯을 보여주고
있으며 石油製品은 韓國이 年間 1,320萬屯을 處理하는데 比
하여 北韓은 現在 雄基에 年間 約 200萬屯의 處理能力을
가진 施設規模를 完了했다고 發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現況을 分析 評價하여 볼때 金屬工業部門은 60年代 後
半期까지 北韓이 相對的인 優位를 차지하여 왔으나 70年代에 와
서 南北韓이 對等하게 되었고 特히 73年度 綜合製鐵의 稼動以後
韓國의 金屬製品生産은 現在 急増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은 製鐵 및 製鋼工業의 單位規模에 있어서는 우리
에 比하여 劣勢에 있는데 主로 10萬屯 내지 5萬屯規模의 群小 製
鐵施設을 가지고 있으며 現在 年産 90萬屯 規模의 綜合製鐵을
鎮南浦에 建設할것을 推進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化學工業部門에 있어 가장 큰 北韓의 취약점은 精油 및
石油化學工業이 落後되어 있다는 點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 機械 및 運輸, 造船工業部門을 보면 韓國은 72年度에 원

동기 生産 1萬4千台, 産業用 電氣器機 5萬8千台, 船舶建設実績 5萬6千屯으로서 그中 最大船舶建造実績이 1萬3千屯級 輸送船이며 自動車 生産能力 年間 9萬台에 達하고 있습니다.

反面에 北韓은 各種 工作機械 2萬3千台, 最大船舶 建造実績이 5千屯級 냉동선이며 「트랙터」 15馬力 換算基準으로 約 9千台, 「디젤」機関車 20台, 電氣 機関車 30台的 生産実績을 올렸읍니다.

따라서 北韓은 이제껏 一般機械工作機械部門을 集中的으로 育成해 왔고 反面에 韓國은 自動車, 造船, 電子工業 部門에서 優位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一例로서 今年度の 金日成 新年辭에서는 北韓은 1萬屯級の 船舶을 建造할 計劃이라고 宣言하였읍니다만 韓國은 今年도에 26萬屯級の 大型船舶을 建造할 豫定입니다.

끝으로 建材 및 輕工業 部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一般的으로 經濟發展이나 經濟開發의 궁극적 目標은 國民의 經濟的 厚生을 極大化 하여 生活水準을 向上시키는데 그 目的이 있습니다.

社會主義經濟體制를 形成하고 있는 北韓에 있어서도 이같은 궁극
적 目標은 「人民生活의 翻期的 向上」에 두고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重工業 優先策을 實施하여 왔기때문에 日常生活과 直結된
輕工業部門은 극도로 억제되고 있습니다 .

그것은 우리 韓國의 60年代 工業化 過程에서도 볼수 있듯이
一次로 投資의 順位를 輸入代替産業에 集中했고, 漸次 이것을 輸出
産業에 連結시키는 即 消費財 工業으로 부터 生産財工業으로 轉換
하는 發展過程을 追求해 온것을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는 現在 重工業으로 부터 輕工業 方向으로
工業化過程을 逆行함으로써 産業間의 不均衡을 深化시키고 全體 經
濟成長率은 둔화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

따라서 北韓에서 個人의 慾求를 充足시켜주는 것은 經濟의 最終
目的으로서가 아니라 주로 住民들의 不滿을 除去하고 生産에 必要
한 勞動力을 刺戟하기 爲한 出資에 不適當한 것이기 때문에 1人獨
裁의 戰略目標을 效果的으로 投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經濟體制
下에서 住民의 福祉란 本質적으로 副次的인 問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輕工業部門의 몇가지 指標를 南北韓 比較하여 볼때,

우선 織物生産量이 韓國은 72年度에 約 4億4千萬平方m, T.V 수상기 年間生産実績 31萬台, 「라디오」 186萬台, 板유리 175萬C/S, 「세멘트」 650萬屯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反面에 北韓은 織物生産量이 同年에 4億6千萬m로서 絶對量에 있어 우리에 比하여 約 20%에 不過하며, 또한 韓國의 섬유공업은 質的인 面에서도 오늘날 完全히 石油化学時代に 進入했으나, 北韓은 아직도 低質의 「아세칠렌」이나 石炭에 依存하는 「비니론」 産業體制를 가지고 있는 実情입니다.

「라디오」는 年間 生産実績이 70年度에 10萬台로 되어 있으나 아직도 地方의 協同農場에서는 그 普及이 普遍化되어 있지 못한 実情입니다.

이같은 現象을 分析 評價하여 보면, 北韓에서는 住民들의 消費生活 提高를 爲한 生必需品 産業의 基礎은 形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輕工業 部門은 南北韓의 比較가 거의 不可能하며 여타의 織物工業, 建材類, 板유리 등의 生産能力은 韓國이 圧倒적으로 우세하며 특히 近來 우리나라는 所得水準의 向上과 輸出增加로 因한 耐久財 生産의 急増現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社会間接資本 現況은, 發電施設 容量이 73年度에 韓國이 427万 KW이며 北韓은 345万KW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電信 電話는 71年度에 韓國은 72万 回線을 凌駕하였으나 北韓은 同年에 20万 回線이라고 發表하고 있으며, 鐵道の 總延長이, 韓國의 5,500 km에 比하여 北韓은 4,100 km, 高速道路는 昨年度, 南海高速道路의 完成으로 1,000 km를 돌파하였읍니다만 北韓은 現在 우리와 같은 高速道路가 全혀 없고 모든 物量輸送을 大部分 鐵道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年間 荷役能力에 있어서도 우리는 輸出入 規模의 急增으로 因하여, 72年度에 2,200万屯을 凌駕하고 있으나, 北韓은 約 1,000万屯 規模에 達하고 있으며 根本적으로 貿易規模가 적기 때문에 近來의 施設擴張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以上을 分析 評價하여 볼 때 電力은 現在 推進中인 原子力發電所와 더불어 施設容量面에서 北韓에 比하여 우세할 뿐 아니라 特別히 에너지 消費面에서, 韓國은 石油, 電力等 多樣化되어 있으나, 北韓은 아직도 電力에 集中 依存을 하고 있기 때문에 發電施設容量의 擴張이 時急히 要請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輸送體系에 있어서도. 韓國은 이미 지난 60年代 後半부터 高速
道路의 擴張으로 오늘날 道路輸送이 漸次 鐵道輸送을 잠식해 가고
있는 近代化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나, 北韓은 아직도 人力輸送,
物量輸送을 거의 鐵道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에 있습니다.

北韓의 對外貿易은 國家管理에 依한 「計劃貿易」으로 實施되고
있으며 北韓의 憲法 34條는 이같은 對外貿易의 國家管理를 規定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對外貿易은 어디까지나 國內 經濟의 從屬된 形態로서 그
들 社會主義 經濟建設에 必要한 物資를 一定한 輸入計劃에 따라
輸入하고 이같은 輸入計劃을 達成하기 爲한 輸出計劃을 設定함으로
서 貿易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73年度의 南·北韓 輸出入 貿易 規模를 보면, 韓國은 輸出入
總額이 約 75億弗로서 그中 輸出이 32億4,000萬弗, 輸入이 43
億3,000萬弗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反面에 北韓은 72年度 貿易總額이 約 10億弗인데 그中 輸出 約
4億7,000萬弗, 輸入이 5億6,000萬弗 相當에 達하고 있으며
73年度에는 總貿易 規模 約 11億5,666萬弗이 現在 推定되고

있습니다.

한편, 輸出의 構造的 特徵을 보면 韓國은 原料 및 1次產品이 12.7%, 製造業 製品이 87%로 되어 있으며, 北韓은 原料 및 1次產品이 64.6%, 製造業 製品이 35%로 構成되어 있는 것이 特徵입니다.

以上을 分析 評價하여 볼 때, 韓國은 貿易規模가 北韓에 比하여 約 7倍에 達하고 있으나 아직도 國際收支의 赤字가 持續되고 있다는 點을 들 수 있으며 反面에 輸出의 構造的 特徵이 韓國은 製品輸出 및 原資材 輸入型으로서, 産業技術의 高度化를 보여 주고 있으나, 北韓은 原資材 輸出 및 製品을 輸入함으로서 産業技術이 落後되었다는 點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은 最近의 經濟沈滯를 脫皮코져 對外經濟協力の 強化를 試圖하고 있으나 아직도 對內的인 投資與件의 不備로 因하여 成果는 거의 없는 것으로 判斷되고 있습니다.

다음, 北韓의 地域別 貿易動向을 볼 때 輸出의 77%는 共產陣營으로서 蘇聯과 中共이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中立陣營이 2.7%

自由障營이 2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最近 數年間에 自由障營과의 交易이 增大하고 있는데 그
中에서도 日・朝 貿易이 지난 72年부터 增加하고 있는 事實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72年度의 對日 輸出이 約 3,800 万弗,
輸入이 9千3 百万弗로서 前年度에 比하여 123 %나 急增하였으며
73年度에는 다시 輸出이 6千8 百万弗, 輸入이 9千4 百万弗에
達하고 있다는 事實이 注目을 要하고 있는데 「党書貿易」의 形
式을 通하여 貿易量을 年次的으로 擴大하여 76년에는 總規模
5 億弗 相當으로 增大시킬 것을 協定하였읍니다.

끝으로 國民經濟生活의 比較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國民經濟生活의 比較란 곧 生活水準의 比較를 말하는 것인데
生活水準의 概念은 우선 國民所得을 中心으로 하여 個人의 消費
函數를 다루어 볼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國民經濟가 生産
한 財貨의 分配面을 中心으로 하여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南・北韓의 異質的 經濟體制下에서 生活水
準의 比較란 價格構造, 消費양상, 北韓統計의 信방도등 여러 가지
制約要因이 첨가되어 더욱 힘든 作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南・北韓의 國民 總生産과 이에 따른 個人

의 可処分所得을 實質的인 厚生面에서 比較 檢討하는 것으로 局限 하겠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972年度 韓國의 GNP는 98 億弗이며, 北韓의 GNP는 約 38 億弗로 推定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人當 國民所得은 韓國이 303 弗이며, 北韓이 260 弗로 서 量的인 面에서는 우리에게 比하여 40 弗이 낮은 水準에 있으나 國民經濟의 擴大再生産을 爲한 投資率의 比較를보면 韓國은 總投資 率이 對 GNP의 21%이며 그中 國內貯蓄이 14.6%, 海外貯蓄이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海外貯蓄을 除外한 韓國의 1人當 投資額은 44 弗에 達하고 있으나 北韓에서는 對 GNP 31%의 높은 投資率이 순수한 國內貯蓄으로 蓄積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날 北韓住民의 1人當 投資額은 約 80 弗에 達하고 있습니다.

또한 對 GNP 軍事費負擔率은 72年度에 韓國은 4.5%인데 比하여 北韓은 14%의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比率은 韓國의 1人當 軍事費 負擔額이 約 13 弗에 不 過합니다만 北韓은 36 弗에 達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러한 現況을 分析 評價하여 볼 때 南·北間의 이같은 貯蓄 率과 軍事費 負擔率의 不均衡은 實質的인 可処分所得이 韓國의 245 弗 對 北韓의 143 弗이란 懸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6年度에 우리나라 輕工業 對 重工業의 比重이 72:28 이
있던것이 71年度에는 66:34로서 構造的인 改善을 이루었고
「Hoffman」工業化 類型에서 볼때 2段階에 進入하였다할 수 있
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工業原料, 機資材의 輸入依存도가 높아 後方聯邦效果
의 海外流出이 크다할 수 있으나 軍需産業과 機械工業部門을 除外
한 모든 部門에서 北韓을 능가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와 反面에 北韓은 지난 50年代와 60年代를 通하여 重工業
優先策을 持續해 왔으며 「全面的인 技術革新을 내걸고 61년부터
追求한 7個年計劃도 3年間 延長에도 不拘하고 石炭과 電力分野를
除外한 여타의 部門은 目標의 70%에 未達했다는 總和 報告書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結局, 7個年 計劃期間中 야기된 共產圈內의 分裂과 中·蘇紛爭은,
北韓의 經濟發展計劃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北韓이 追求한
自主國防 路線은 産業政策을 軍需産業 爲主로 轉換하였기 때문에
70年代에 와서 成長의 둔화추세가 表面化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北韓은 現在 住民들의 不滿을 解消하기 위한 「人民奉仕
委員會」를 設置하고 朴成哲이 委員長에 취임하는 등 輕工業分野에

도 關心을 돌림으로서 重工業으로부터 輕工業으로 轉行을 하는 現
象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들이 追求하고 있는 政策의 基本·路綫이
변경되지 않는 限 經濟成長의 潛在力은 限界에 到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南·北韓經濟의 構造의 強·弱點을 比較하여 볼때, 北韓의

比하여 우리의 相對的인 強點은 GNP 및 1人당 國民所得이 北韓
을 超하고 있으며 産業基盤의 近代化와 輸出의 劃期的 增大, 社
會間接資本施設의 補充을 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開放體制下에서
國際協力を 強化함으로써 高度成長을 持續하고 있다는 點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北韓의 強點은 地下資源이 北韓에 備重되어 있
으며 重工業 優先策의 結果 金屬, 機械工業이 比較的 發達하였고
軍需工業이 개발화 되어 있다는 點을 들 수 있습니다.

反面 韓國經濟의 構造의 弱點으로서 는 아직도 外資의 依存度가
높고 國際收支의 赤字가 持續되고 있으며 特別히 工業原料의 輸入依
存度가 높아 國際「인프레」 및 資源波動의 效果가 큰 점이며 北
韓의 弱點은 輕工業 및 社會間接資本施設이 落後되었으며 特別히 閉鎖
體制의 固守로 因한 國際經濟協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開發財源의
確保가 어렵고 技術革新의 차질을 招來하고 있다는 點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66年度에 우리나라 輕工業 對 重工業의 比重이 72:28 이
있던것이 71年度에는 66:34 로서 構造的인 改善을 이루었고
「Hoffman」工業化 類型에서 볼때 2段階에 進入하였다 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工業原料, 機資材의 輸入依存도가 높아 後方聯邦效果
의 海外流出이 크다 할 수 있으나 軍需産業과 機械工業部門을 除外
한 모든 部門에서 北韓을 능가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와 反面에 北韓은 지난 50年代와 60年代를 通하여 重工業
優先策을 持續해 왔으며 「全面的인 技術革新을 내걸고 61년부터
追求한 7個年計劃도 3年間 延長에도 不拘하고 石炭과 電力分野를
除外한 여타의 部門은 目標의 70%에 未達했다는 總和 報告書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結局, 7個年 計劃期間中 야기된 共產圈內의 分裂과 中·蘇紛爭은,
北韓의 經濟發展計劃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北韓이 追求한
自主國防 路線은 産業政策을 軍需産業 爲主로 轉換하였기 때문에
70年代에 와서 成長의 둔화추세가 表面化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北韓은 現在 住民들의 不滿을 解消하기 위한 「人民奉仕
委員會」를 設置하고 朴成哲이 委員長에 취임하는 등 輕工業分野에

도 關心을 돌림으로서 重工業으로부터 輕工業으로 移行을 하는 現象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들이 追求하고 있는 政策의 基本 路線이 변경되지 않는 限 經濟成長의 潛在力은 限界에 到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南·北韓經濟의 構造的 強·弱點을 比較하여 볼때, 北韓에 比하여 우리의 相對的인 強點은 GNP 및 1人當 國民所得이 北韓을 능가하고 있으며 產業基盤의 近代化와 輸出의 劃期的 增大, 社會間接資本施設의 擴充을 들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開放體制下에서 國際協力을 強化함으로서 高度成長을 持續하고 있다는 點을 들수 있습니다. 한편 北韓의 強點은 地下資源이 北韓에 備重되어 있으며 重工業 優先策의 結果 金屬, 機械工業이 比較的 發達하였고 軍需工業이 계열화 되어 있다는 點을 들수 있습니다.

反面 韓國經濟의 構造的 弱點으로서는 아직도 外資의 依存度가 높고 國際收支의 赤字가 持續되고 있으며 特히 工業原料의 輸入依存度가 높아 國際「인프레」 및 資源波動의 效果가 큰 점이며 北韓의 弱點은 輕工業 및 社會間接資本施設이 落後되었으며 特히 閉鎖體制의 固守로 因한 國際經濟協力이 거의 없기 때문에 開發財源의 確保가 어렵고 技術革新의 차질을 招來하고 있다는 點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 70年代 中半期 까지의 展望을 보면 韓國은 重化学工業의 集中的 育成으로서 機械, 金屬, 化学, 造船工業部門의 急速한 發展이 豫想되며 80年代의 輸出目標 100億弗, 國民所得 1,000弗의 「維新課業」基本目標의 達成이 한층 뚜렷해 졌으며 3次5個年 計劃의 最終年度인 76年度의 韓國의 GNP 成長은 總量面에 있어 北韓에 比하여 3.1倍가 豫想되고 있습니다.

反面, 北韓에 있어서는 60年代의 「7個年 經濟計劃」의 失敗와 經濟發展의 沈滯는 結局 다음 3가지로 要約할 수 있는데,

첫째, GNP에 對한 14%의 높은 軍事費 負擔率이 開發財源을 잠식하고 있으며

둘째, 北韓가 追求하고 있는 Autarky 經濟體制의 固守는 諸外國과 의 資本의 協力이 이제껏 全無한 상태이기 때문에 技術革新의 차질을 가져왔고

셋째, 資源의 制約을 無視한 重工業 優先政策은 産業間에 不均衡을 심화시킨데 起因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結局, 北韓과 같은 制限된 資源을 가지고 있는 小規模의 經濟單位가 低水準의 自給經濟體制를 固守한다는 것은 經濟的 自害行爲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76年度까지의 南·北韓 GNP 成長趨勢를 보면 3次5個年計劃의 最終年度인 76年度에 韓國의 總量規模는 現在 約 168 億弗이 豫想되는 反面, 北傀 人口增加率, 物價指數, 換率 等の 諸變數를 固定시키고 8%의 成長率을 적용할 때 約 54 億弗의 總量規模가 豫想되고 있습니다.

北傀는 이같은 南·北間의 国力伸張의 不均衡을 豫測한 나머지 現在 推進中인 「6個年經濟計劃」의 수행을 爲하여 最近 日本의 大企業에 대한 發電機製造設備等 商談을 推進中에 있으며, 漸次 西方世界, 특히 독일, 和蘭, 불란서 等の 資本과 技術의 協力を 獲得하고져 광분하고 있는 實情이나 6個年計劃의 目標達成可能分野로서는 現在 電力·金屬·石炭工業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事實을 綜合하여 볼때 北傀는 結局 閉鎖社會로 부터 開放社會로 轉換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構造的 矛盾을 內包하고 있으나 그들이 이제껏 追求하여 오던 政策의 基本路線을 急激히 變更한다는 것은 只수까지 體制維持를 하여온 基本理念과 姿勞의 變更를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에 金日成으로서는 70年代 中半期까지가 選擇의 重大한 試練期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内部의 構造的 矛盾을 해결하기 爲하여 그들의 對外
關係, 特히 韓國에 對한 硬直性을 加一層 維持해 나아갈 것이 豫
見됨으로 이같은 現象은 今後 南·北關係에 있어 우리가 特히 警
戒할 點이라 하겠읍니다.

以上 報告 말씀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